

부산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단계적 개편 박차

장거리 노선·배차간격 조정 시급
평균 배차간격, 시 전체 2분 단축
9개 노선 신설, 21개 노선 변경

부산시는 장거리 노선과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기장·강서 지역 등 도시 외형 확장에 따른 장거리 노선 증가로 시내버스 운행 시간은 2007년 평균 109분에서 지난해 161분으로 증가하고, 평균 배차 간격은 2007년 10분대에서 지난해 17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2023년 8월~2024년 12월)'을 통해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노선 개편에 관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7%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노선 개편 시 가장 원하는 것은 '장거리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단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노선 개편에서 나온 효과를 분석해 도심 지역은 만덕·센텀 도시화 고속도로, 사상·하단선, 부전·마산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년 이후 2단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 개편안으로 ▲기장·강서 지역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평균 6

분 단축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 고속형 버스 확대 도입 ▲신도시에 신규 노선 공급, 정관신도시에 내부순환선 도입 ▲기장 오시리아, 강서 지역에 수요 응답형 교통(DRT)을 확대 도입해 사각지대 없고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거리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기장·강서 지역은 평균 배차 간격을 6분 단축, 시 전체로는 2분 단축한다.

현재 안은 145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144개로 조정하며 9개 노선을 신설, 21개 노선을 변경, 이용객이 매우 적거나 중복되는 10개 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이다. 변경 및 폐지된 노선에는 대체 노선 공급 또는 수요 응답형 교통 공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이번 마련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의회, 구·군 의견 조회,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해 내년 4월 중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안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일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 시민을 위한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장려상

여주시(시장 정기명)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2024시즌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19개 종목 127개 팀 전지훈련을 유치해 연인원 6만 5천여 명 방문과 약 62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2개소와 체육관 3개소, 다양한 종목의 전용경기장이 마련됐으며, 올해는 종합경기장 내 체력단련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 선발

전남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을 선발해 12월 초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10월 중순까지 장학생 모집공고를 거쳐 심사 및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명을 선발했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242명의 학생에게 3억6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지원 규모는 3억4000여 만원이다. 대학생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도 지급한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기업 6곳 'CES 2025' 혁신상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를 앞두고 부산기업이 역대 최다인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 수상 기업은 ▲로보원(인공지능재활용 로봇, 로반) ▲피티브로(턱관절 질환 통증완화 홈케어 기기, 에어크리스) ▲집(집이식 휴대 여행용 기타, 모가비) ▲뉴에너지(탄소 저감 보일러 이온히팅시스템 구독 서비스) ▲씨아이티(Beyond 5G 통신환경의 mWave 대역용 안테나) ▲맵시(컴퓨터 비전 및 다중센서 기술이 적용된 해상 내비게이션) 등이다. 특히 로보원은 지속가능성&에너지&전력과 스마트시티 등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사천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상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4개 상수도 대행업체와 함께 수도 시설 동결·동파 긴급 지원반을 편성, 한파에 따라 수도관이 결빙되거나 계량기가 동파한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예정이다. 수도 시설 동결·동파 긴급 지원반은 4개반 29명으로 구성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울산시, 달천아이파크~천곡천 도로 준공

폭 20m, 연장 0.26km... 117억 투입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정상통행

울산시는 북구 천곡동 일원 지역 1만 300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가 준공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8일 오후 쇠부리교에서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김두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북구 천곡동 일원 내부 도로 미연결 구간인 폭 20m, 연장 0.26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11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부터 보상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의 이유로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 1년 9개월 만인 이날 준공을 하게 됐다.

도로는 준공식 행사 이후 쇠부리교 내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11월 27일 낮 12시부터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 개설로 천곡·상안·달천동 1만 3000여 세대의 교통편의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시군과 협력해 내달 20일까지 진행

경남도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경남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거제시는 지난 17일 거제시체육관에서 '2024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주시, 포장마차 테마 축제 진행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

경주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문화관 1918(구 경주역)에서 겨울 축제 '2024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주 사계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의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 윈터라이트포차 in 경주'는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진행된다.

'포장마차'를 테마로 한 11개 음식 부스와 지역 대표 주류업체들이 운영하는 포차 광장과 포차 라운지가 마련된다. 또 경주법주 등 경주의 특산 주

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역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문화관 1918 전시관 내부에서는 '차원의 문', '빛 속으로', '컬러 웨도우', '스포트라이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라이트쇼가 열려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생맥주 3500원, 소주 3000원, 법주막걸리 3000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하며, 떡갈비, 육전, 옛날통닭, 양고기구이, 봉어빵 등 40여 가지 안주류도 1000원부터 1만 2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거제시, 10개국 외국인노동자 한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거제시는 지난 17일 거제시체육관에서 2024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80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10개국 외국인노동자 가수 입장을 시작으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 화합운동회,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체육관 바깥에 설치된 떡·식혜 등의 전통음식, 투호 등 전통 놀이 체험 부스를 이용하며 한국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정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범죄예방, 고용허가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산업안전 VR체험, 무료 이미지 봉사 부스를 운영하여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